

E-08 장기 자산형성과 투자관리

비상자금·주거·교육·노후자금을 목적과 기간별로 나누고 투자위험을 배치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자산형성기에는 여러 목표가 동시에 **생깁니다**.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기 전에 언제 쓸 돈인지, 손실을 기다릴 수 있는지, **권리**와 비용을 이해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.

자산배분은 상품 이름보다 목표기간·유동성·손실감내**능력**에 맞춰 위험을 나누는 과정입니다. 연금계좌의 세제와 인출조건, 신종상품의 거래구조와 보관위험은 별도로 확인합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목표별 자금

사용목적과 시점에 따라 분리해 관리하는 돈입니다.

생활 예: 2년 뒤 주거자금과 25년 뒤 노후자금을 다르게 운용합니다.

자산배분

성격이 다른 자산에 위험을 나누는 결정입니다.

생활 예: 한 종목이 아니라 현금·채권·주식 등 역할을 정합니다.

유동성

필요할 때 큰 손실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입니다.

생활 예: 중도환매 제한과 거래량을 확인합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목표와 사용시점을 적는다
- 2단계. 목표별 최소 필요액과 중단 **가능성**을 구분한다
- 3단계. 유동성·손실·비용·세금을 비교한다
- 4단계. 집중위험과 신종상품 비중을 확인한다
- 5단계. 정기점검과 재조정 **기준**을 정한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사용시점이 가까운 돈은 유동성과 손실회복기간을 우선한다

반대 접근: 최근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모든 목표자금을 옮긴다

이유: 필요한 시점의 손실은 장기 평균수익률로 회복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연금·일반계좌·신종상품의 **권리**와 인출조건을 따로 확인한다

반대 접근: 세제혜택이 있으면 원금과 수익도 보장된다고 본다

이유: 세제와 투자손익, 인출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가상가구의 비상·주거·교육·노후 목표를 기간별로 나누고 각 자금에 필요한 유동성과 허용손실을 배치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97 서민금융콜센터
- 1600-5500 신용회복위원회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내 금융자산을 사용할 시점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

<https://csa.nps.or.kr/ohkd/ntpsidnty/anpnctng/UHKD7701M0.do>

국세청 연금계좌 과세 안내
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7885&mi=6605>

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>

금융위원회 고위험상품 투자 유의 안내

<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6910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